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 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5월 성모성월

- 목주기도 : 5/1(월)부터 매일미사 30분전 시작
- 성모의 밤 행사 : 5/24(수) 저녁 7시 미사 후
- ※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하여 신자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선행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성모성월의 목적은 인간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 알 림

- 다음 주(5월 21일)는 홍보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 25일(목) 8시 30분 노인분과 죽산성지 순례 있습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1Cu-우리어머니	5월 14일(일), 12:00	강 당
2Cu-사도들의 모후	5월 14일(일), 13:30	강 당
울뜨레아	5월 21일(일), 11:40	강 당

◎ 본당 임원 성지순례

- 대 상 : 본당 임원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 순례기간 : 2023.5.18.(목) ~ 5. 20.(토) 2박 3일
- 순 례 지 : 제주도

◎ 회 의

- 사목협의회
 - 일 시 : 5월 25일(목), 19시 40분
 - 장 소 : 강 당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첫 모 임 : 6월 11일(일) 교중 미사 후, 1교실
 - 교리 시작 : 6월 13일(화) 저녁 8시
 - 접 수 처 : 본당 사무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든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맛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1인 1구좌 후원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5/2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5월 3일 ~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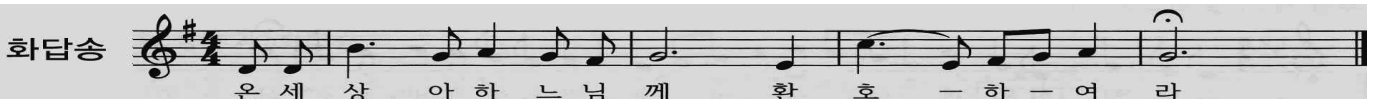
- 교 무 금 8,155,000원
- 주일헌금 4,487,430원
- 강미자100만원 이형순10만원 이봉연 5만원
신종구 5만원 양○○ 5만원 심진보15만원
- 감사헌금
손정호 5만원 노인분과 247,110원
4구역 국수 잔치 나눔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5/14	구민서 조홍환	신종구	김영균	유숙중	하재민	김성해
5/21	이인옥 심재순	도현만	김진수	장희석	김덕영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5/14	이화봉	옥윤필	김인기	박용환	최창열
5/21	장인홍	김인기	손상민	박형순	옥윤필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궁극적 토대

272.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분께 열려 있지 않으면 형제애를 호소할 공고하고 확실한 명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고아가 아니라 자녀라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성은 그 자체로 인간의 평등을 이해할 수 있고 시민 생활의 공존에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형제애를 이루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273. 이러한 전망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다음 본문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만일 초월적 진리가, 인간이 그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그 초월적 진리가 없다면, 사람들 간에 의로운 관계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원리는 없습니다. 계급, 어떤 대중 집단, 민족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이들이 서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만일 초월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력의 힘이 우세해지며, 각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자 가지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듭니다. ……따라서 현대 전체주의의 근원은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의 부정에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가시적 모상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인간은 바로 그 본성상,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의 주체인 것입니다. 개인도, 집단도, 계급도, 국가도, 민족도 그 권리들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한 사회체를 이루는 대다수라 할지라도 소수를 반대하여 결코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274. 우리는 다양한 종교들을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신앙 체험, 세월과 더불어 축적된 지혜, 우리의 수많은 나약함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에서 출발하여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을 하느님을 찾는 노력은, 우리의 이념적 또는 실리적 이해관계로 저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길동무이고 참형제 자매임을 깨달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에서 하느님을 지워버리려 할 때, 우리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머지않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인간 존엄이 짓밟히며 인간의 권리들이 침해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자유의 박탈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처가 인간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과 이상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